

동양과 서양의 몸

정 화 열

헤라클레스부터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서양에서의 존재의 의미는 유교, 노자, 그리고 부처에서부터 마오쩌둥, 테수오와쑤지, 톱낫한에 이르기까지 동양에 있어서의 상호 존재적 의미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2002년 정화열 *세계화 시대의 비교 정치 문화* 참조). 보편성이라는 미명아래 현대 서양의 주류 유산은 불행히도 동양의 철학적 유산을 소외시키고, 그 권리를 박탈해 왔다. 서양의 독특함은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된 반면 동양의 독특함은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며 남아 있다. 그러므로, 보편성은 결국 진정한 유럽중심적인 사상이 되었다. 데리다에 따르면, 유럽 중심주의의 해체는 형이상학 역사 전체의 해체를 요구하는 실로 어려운 일이다.

두 병치 단어를 조합해 만든 “지구촌 (global village)”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 세상에서, 유럽 중심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 우리는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거나 초월해야 한다. 나는 보편성이라는 유럽중심주의 사상(정화열의 횡단성에 대한 짧은 정의, 1999년 *캠브리지 철학 사전 제 2개정판* 참조)을 대체하고자 횡단성(메를로 폰티는 “횡적 보편성”이라 칭했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다문화, 세계화 시대 세계 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런 횡단성은 헛되이 같은 구멍을 계속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의 새로운 구멍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수직적이 아닌 횡적이다.

동양의 삶과 사상을 특징짓는 상호존재적이라는 생각은 사회 과정으로서의 현실 자체를 정의한다. 즉,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다.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상호존재적은 단순히 인간간의 상호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종족간의 관계 또는-중화어를 사용해 표현하자면- “일 만가지 사물” 사이의 모든 관계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상호존재적인 생태 사슬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근대 서양에서, “ 명백하고 뚜렷한 생각들” 을 치열하게 추구하는 코기토(나는 생각한다)의 원칙에 입각한 데카르트의 인식론적 지배는 분명히 육체에서 분리되어 있고, 자아 및 시각 중심적이다. 그것은 인생의 해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계몽철학의 대부인 칸트는 이성의 힘과 자율성이 인간이 자초한 미성숙으로부터 인류의, 즉 서양 인류의 해방이라고 제시했고, 이를 통해 데카르트의 길을 밟게 된다.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자들에게 서양의 인간애와 “ 남성주의사고” 의 유산은 그 자체 만으로도 인종차별주의와 반 페미니즘(반 육체와 반 생태학뿐만 아니라)을 동시에 가리키는 이성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인종주의, 반 페미니즘, 반육체, 그리고 반생태학은 계몽철학 이성의 4가지 사고 과제이다. 반페미니즘 철학과 관련해선 영향력있는 프랑스 페미니스트 철학자 이리가레이가 사용했던 시각적 헤게모니에 기반을 둔 “ 남성우월중심” 이라는 용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접촉(touch) 또는 감촉(tacility)의 언어적 감각에 기반을 둔 그녀의 페미니스트 철학적 형태학은 남근중심적인 논리중심주의나 이성중심적인 단원론적 “ 오류” 를 전복하거나 초월하는 걸 의미한다.

사회적 과정으로써의 현실은 무엇보다도 먼저 상호 육체적(intercorporeal)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구현화된 행동을 포괄한다. 그러나 몸 또는 살이 없다면, 사회성도 관계도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몸은 세상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회적 자리잡기(social placement)이다. 몸은 사회에서 가장 원초적인 장소이고 인간에게나 자연 모두에게 세상에서 가장 활동적인 형태의 존재이다.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각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먼저 타자의 몸에, 그 다음에는 타자의 마음에 관계시킬 수 있다. 오직 이런 의미에서 세계는 몸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메를로 폰티의 *인지적 현상학* 참조). 현실이 사회의 한 과정으로 정의될 때, 사실상 정신에 대한 몸의 존재론적인 우월성이 있다. 한 유기체의 몸은 다른 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반해, 정신은 단 하나의 몸에만 연결되어 있다.

유명한 일본의 불교신자가 “ 수양(shugyo)” 또는 “ 훈련(keiko)” 을 통해 우리는

정신에 대한 몸의 우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시사했다. 그는 “ 계몽(satori)” 은 주로 몸의 기능을 의미하지 정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단순한 “ 상투문구” 나 “ 관념” 을 뛰어 넘고자 한다면, 계몽(satori)에는 몸이 명상을 하는 “ 마음” 가짐을 갖게 하는 좌선(zazen)이 필요하다. 좌선은 육체적인 수양 또는 앉아서 하는 명상이다. 이는 가부좌 자체가 중화 문화에서 인간의 네가지 “ 위엄”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 세 가지는 걷는 것과, 서있는 것, 그리고 누어있는 것이다. 좌선은 몸에 대해 배우고, 몸으로 직접 하는 것이므로, 명상은 구현화 되어야 한다. 선에서 몸과 영혼은 둘이 아닌 하나로써, 선을 통해 몸은 영성의 상태에 도달한다.* 신유교 철학자 왕양민은 세상은 “ 만가지의 사물” 이 “ 하나의 몸” 처럼 구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다. 한국에서도 생태학과 관련해, 대지와 인간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로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다. 구푸(일본어로 kufu)는 “ 일종의 영성적 탄생 고통” 으로 묘사된다. 머리카 두뇌가 아닌 “ 복부로 생각” 하는 것으로써, 이는 사고를 행동의 구현으로 나타낸 로댕의 걸작품 “ 생각하는 사람” 의 생각하는 영혼을 구현한다. 게다가, 두개의 오른손이 마주보도록 함께 표현한 로댕의 “ 성당(The Cathedral)” 은 구현화된 사회성의 친밀한 의식을 상징한다.

여기서 중화 멘털러티를 강조하고 수세기 동안 중화인의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되었던 중국의 표의 문자는 몸짓 언어다라는 사실을 덧붙여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일부 언어학자가 중화의 표의문자를 중화기술학(sinography)이라고 칭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중화의 정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이러한 몸의 매개체에 의존한다. 중화인의 관점에서, 몸은 모든 것, 즉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수단(음악적 관점에선 메트론(metron:척도))이다. 중국의 표의문자-특히 서체-는 사실상 키네틱 예술(Kinetic Art)이다. 즉 우아하게 움직이는 인간의 몸인것이다. 몸의 상징 또는 “ 형상” 으로써의 상형문자는 키네스테틱(신체감각적)한 것이다. 중화의 정신은 서체예술을 회화만큼이나 존중한다. 서체는 상형문자 또는 - 예술가의 영적 개인적 차원을 암시하기 위한-“ 문자” 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계보를 따져 보면, 서체는 회화보다 먼저 등장했다. 중국의 표의문자는 인간 몸짓으로 구성되어있는

안무와 같고, 한 기표 집단으로써는 “몸짓의 대화”이다. “몸짓의 대화”는 그 의미 때문에, 상형문자를 인간생리학으로 격하시키는 게 아니다. 상형문자의 수사학은 그 문자가 “나무”, “태양”, “개울”, “남자”, “남성의”, “여성의”, “미소”, 또는 “울음”이든지, “말하는 그림(speaking picture)”으로써 그 위치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인간 표현 (“미소”나 “울음”같은)의 표의적 “몸짓”은 비슷한 반응을 답례로 기대하는 잊혀지지 않는 무언의 몸짓이다. 피카소의 “수영하는 사람(Swimmer)”과 “곡예사(Acrobat)”는 날렵하고 리드믹한 동작의 두 가지 인간 몸의 움직임입니다. 이들 동작은 표의문자 또는 서체와 유사하다. 다시 말하면, 발레 또는 즐겁게 뛰노는 인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스테판 말라르메는 댄스를 “생각의 시각적 구현화”라고 말했다. R.G. 콜링우드 또한 모든 언어는 몸짓 형태로 특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댄스는 모든 언어의 어머니다라고 예리하게 평했다. 사유엘 벤키네티는 Not I에서 말하는 것의 극적임을 말의 울동으로 “안무”했다. 벤키네티와 함께 우리는 몸짓으로써 언어(예를 들면, 중국의 표의 문자)에서 말하기와 쓰기는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댄스는 시공상에서 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댄스는 모든 시각적 청각적 예술의 “탄생지”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게다가 반인쇄매체 논문 구텐베르그 갤럭시(Gutenberg Galaxy)를 표의문자로 기술한 맥루한은 중국의 상형문자를 육체 에너지의 소용돌이-“육체적 집합적 두 가지 의미에서 “육체”-라고 생각했다.

18세기 반데카르트 철학자 지암바티스타 비코의 영향력은 맥루한의 유작 미디어 법: 신과학(Laws of Media: The New Science)까지 미친다. 비코는 “말은 몸에서 그리고 몸의 소유물에서 “정신과 영혼”을 나타내기 위해 옮겨진다는 주장은 매우 명확하고 깊이가 있다(Scienza Nuova 참조).**데카르트에게 있어 인쇄문화는 비코와 하이데거에게 있어 전자 문화와 동일하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근본으로써 비코가 보는 구현화에 대한 생각은 서구 현대화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나 서구의 산트라주의는 프리드리히 니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니체는 스스로를 문화의 “의사(physician)”라고 일컬으며 데

카르트와 칸트, 헤겔이 구축해놓은 서구 근대 논리중심주의 전복의 급진론자였다. 니체는 비코 철학의 진정한 계승자라 할 수 있고, 20세기 니체의 뒤를 이은 철학자들로는 바흐친, 메를로 폰티, 바타이, 푸코, 들뢰즈가 있다. <<짜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 내 몸은 나의 전부이며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이란 몸의 어떤 면을 말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말한다. 니체의 계보에 따르면 심미성은 몸의 담론으로써 탄생하고, 오랫동안 소중히 전통으로 간직되어 온 ‘ 이론(theoria)’ 에 도전한다. 이론은 시각적 용어으로써 동양의 사고나 행동양식 관점에서 매우 낮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흄의 뒤를 이은 칸트의 인종차별주의는 그의 미와 숭고함에 대한 미학 주해서에 드러난다. 이제 횡단적인 탄트라 주의와 동양과 서양의 탄트라적인 경계의 교차가 드러나고, 이는 이리가레이의 페미니스트 철학에 도입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기술은 인공적 신이다. 수단이 목적 그 자체가 되 버렸을 때(예를 들면 “ 자동 기술” 처럼), 정확한 의미에서 이를 더 이상 인간의 “ 연장” 이라고 할 수 없다. 기술은 맹목적인 “ 기술맹신주의” 를 양산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대부분이 기술 언어로 쓰여진 산문체로 가득찬 세상과 지식의 사이버화와 사회의 컴퓨터화등의 기술 체계 모니에 갇혀버린 인간의 상황에 환멸을 느낀다. 우리는 모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불모가 되어 버렸다. 기술이 총체적이고 일차적이며, 세계적이고 지나치게 진부하고 표준화되어 버린 시대에, 그리고 매크로 기술의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전 지구에 대규모의 공동묘지를 생성하고, 인류를 집단적 멸종위기로 몰아넣는 시대에, 또 마이크로 기술이 “ 제2” “ 제3” 의 나를 생산 내지는 복제하고, 그 “ 영혼” 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술 원형 교도소에 이미 감금되었거나 아니면 곧 감금될 그런 시대에 기술 비평은 가장 중요한 형태의 비평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모두 “ 유선” “ 무선” “ 인터넷” 으로 연결되고, “ 디지털” 화 될 때, 즉 우리가 연재물이 되고 채널화 되어 존재하는 삶을 영위할 때, 역사 또는 세계적 역사는 악몽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인터넷의 시대가 도래하기 이미 오래 전에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Ulyseese)에 어울리는 언어로 메를로 폰티는 “ 인간은

자기가 되고 싶은 매니플랜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도 인간과 역사에 대한 거짓도 없는 문화의 제도권으로, 그리고 영원히 깨지 않는 수면 또는 악몽으로 들어간다” 고 경고했다.

수세기전 도교의 현자 장자는 일상적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자는 그 마음 또한 기계처럼 되리라라고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가상의 몸 또는 사이보그가 현실의 실제적인 몸을 대체한다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가상적인 존재가 어떻게 형상화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아둔한 질문이라 할 수 없다. 현상론자들은 컴퓨터화와 “ 분명하고 뚜렷한 생각들” 을 추구하는 데카르트의 몸과 분리된 코기토(나는 생각한다)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몸과의 분리의 문제는 컴퓨터 또는 사이보그가 할 수 없는 궁극적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떻게 몸이 가상적 육체 또는 사이보그가 될 수 있는가? 가상적 육체는 T.S. 엘리엇트가 탄생, 결합 그리고 죽음이라고 불렀던 그 구현화된 연속물의 순서대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사이보그가 인간의 관계가 한낱 육체적 접촉으로 정의될 뿐인 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서구의 인공적 또는 가상적인 것에 대한 열정에 비추어 봤을 때, 최종 분석으로써, 중국의 철학자 풍우란이 반세기전에 한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있다. 그는 “ 중국에 왜 과학이 없는가?” 라는 문제를 잘 생각해본 뒤, 4000년 동안의 중국인들의 지혜는 우리가 “ 서양은 외부 확장주의다. 동양은 내부 강화주의다” 라는 것과 “ 서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지만, 동양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강조한다.” 라는 간단하면서도 일반화 되어 있는 사실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동양의 몸은 외연체 (res extensa)가 아니라 크고 작은 지구 위의 모든 생명체들과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존재이다.

*초기의 기독교 수도사 오리겐은 “ 성적 특성들을 부여 받은 육체로 영위되는 인간의 삶은 새벽의 여명과 함께 사라져버릴 기나긴 밤의 마지막 어둠의 시간이라고 믿었다. 육체는 변형의 가장자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변형이 너무나 거대해서 현재의 모든 정체성의 개념

을 성적 차이와 결부시키고, 결혼, 생산, 출산에 기반을 둔 모든 사회 역할은 햇살아래 춤추는 먼지처럼 취약하기만 하다.

** 비코는 “ 모든 언어에서 무생물과 관련된 더욱더 많은 표현이 인간의 몸과 부위 그리고 인간의 감각과 열정에서 비롯된 상징어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라고 썼다. 그러므로 정상 또는 시작의 머리, 언덕의 눈썹과 어깨, 바늘과 감자 같은 눈, 컵과 주전자의 입, 갈퀴, 톱, 빛의 이, 밀의 수영, 신발의 혀, 강의 목, 바다의 팔, 시계의 손, 돛의 불룩함, 과육, 암맥, 수맥, 포도주의 피, 지구의 핵. 천국 또는 바다가 미소 짓는다, 바람이 휘파람 분다, 파도가 속삭인다, 무게에 짓눌려 몸이 신음한다. 라티움의 농부들은 들판이 목마르다, 열매를 맺는다, 곡식이 넘친다라고 표현했고, 우리의 시골 농부들은 식물이 사랑을 한다, 포도덩굴이 사방으로 뻗어간다, 송진 나무가 수액을 분비한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예들이 모든 언어에서 수집 가능하다.

***성적특질이 없는 사이보그와 오리겐 기독교 수도사 사이에는 사실상 많은 유사점이 있다.